

완도 가뭄 때 기부된 생수병, 친환경 섬유로 태어난다

전국 각지에서 완도군에 기부된 생수병(페페트병)이 의류와 에코백으로 재탄생한다.

심각한 가뭄을 같이 극복하려는 의미로 전달된 생수 기부 뜻 살려 환경을 고려한 제품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전남도는 "최근 완도군, 효성T&C와 함께 '완도군 기부 생수 페페트병 재순환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한 3차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비가 내리지 않자 섬이 많은 완도에 가뭄 피해가 발생했다. 금일 등에는 저수지가 메말라 제한급수가 단행됐고 먹을 물조차 확보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와 기업 뿐 아니라 개

완도군-전남도-효성T&C '페페트병 재순환 프로젝트' 협약

의류·에코백 등 제작키로... 전남도 "자원순환 경제체계 구축"

인까지 완도군에 생수를 기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완도로 들어온 페페트병은 62.4t(지난해 38.5t, 올해 23.9t)에 달한다. 주민이 물을 마시고 버려진 빈 병이다.

지난해 1분기 완도에서 한달 평균 수거된 페페트병은 2.7 t이었지만 올해는 1분기에는 한달 평균 페페트병 수거량이 251.8%(9.5 t)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완도군에서 수거된 페페트병은 총 272만5000여개에 달했다.

완도군은 급증하는 페페트병을 매각했지만 전남도는 이를 안정적으로 수거하고 고품질 원료로 재생산하기로 했다. 일명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한다는 것이다.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남도 등의 업무협약에 따라 완도군이 페페트병을 모으고 효성T&C가 섬유를 뽑아내면 해당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을 전남도에서 구매한다. 제품 목욕이나 판매처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티셔츠, 조끼 등 근무복으로 재생산되거나 에코백이나 보냉백 등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들어진 제품은 국립기술품질원의 자원재활용 기술개발센터가 부여하는 인증규격인 'GR'(Good recycled) 마크를 달고 판매된다. '수거'→'재활용'→'친환경 제품 구매'라는 3단계 순환 경제체계를 구축해 기부의 뜻을 살리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구상이다.

전남도는 완도 노화읍, 보길면 등 가뭄이 극심했던 지역 위주로 도비 3500만 원을 들여 분리수거함 50여 개를 설치해 빈병을 모을 계획이다.

페페트병이 모이면 무역업체에서 수거해 세척과 분쇄 등을 맡는다.

효성 T&C는 세척된 페페트병을 전남도를 통해 구매한다. 1kg당 상태가 좋지 않은 페페트병의 경우 120원, 상태가 좋은 페페트병의 경우 최대 400원까지 판매된다. 세척된 페페트병은 섬유(원사)로 만들어진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완도에서 버려지는 페페트병을 적극 사용돼 리사이클링하는 것은 자원순환을 위한 좋은 사례"라며 "많은 페페트병이 사용된 점퍼나 일상 속 생수가 많이 사용되는 지역에서 적극 벤치마킹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전남지노위, 보육대체교사 구제 신청 기각

교사 측, 판정문 받은 뒤 중노위에 구제 신청키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8일 지노위에 따르면 전남 보육대체교사 2차 계약 종료 대상 20여 명 중 9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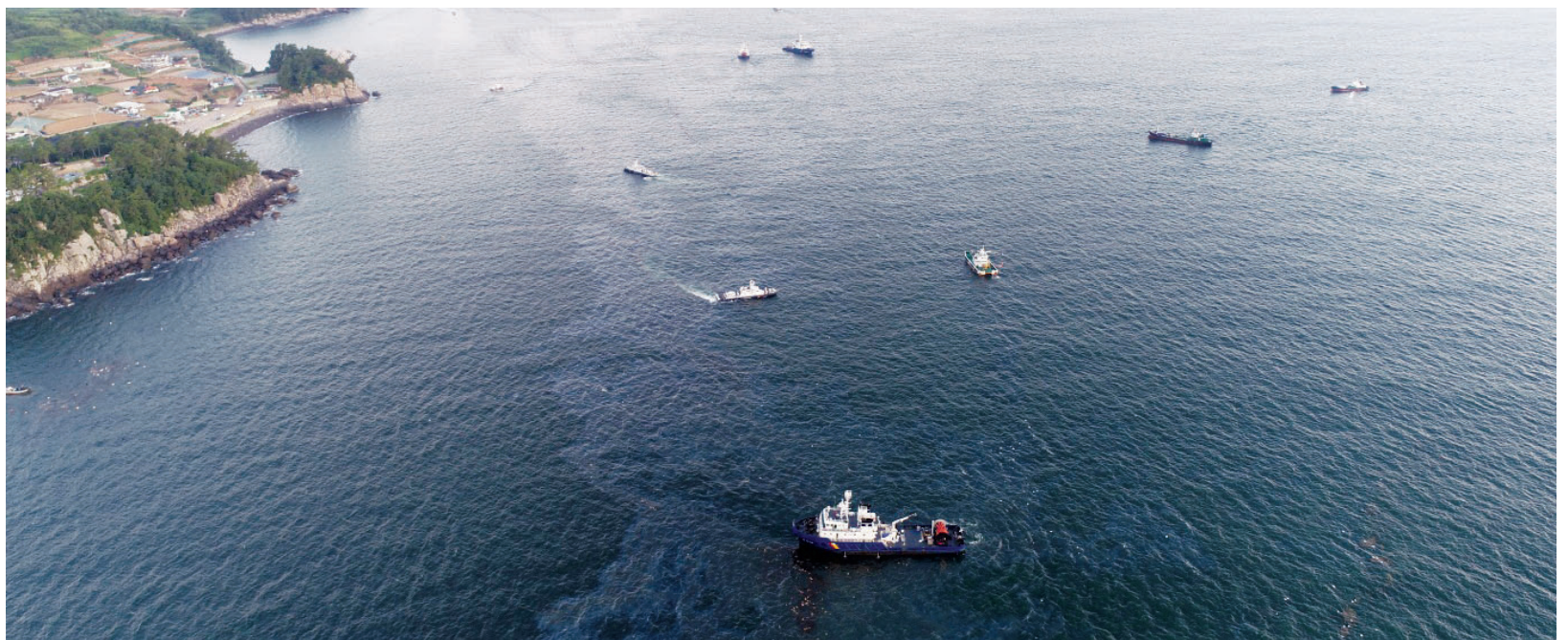
보육대체교사는 지노위에 지난 5월 18일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앞서 1차 계약 종료 대상 보육대체 교사들이 제기한 구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7일 중노위가 동일 사안에 대해 2차 심문위원회를 열고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은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육대체교사 측은 절차에 따라 한달 뒤 판정문을 받는 대로 10일 이내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고된 보육대체교사 37명은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1년 단위 계약과 해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로 형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겨 고용을 연장할 수 없으며 재입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여수 바다 기름 유출 여수해경이 8일 새벽 1시 40분께 여수시 오동도 북동쪽 약 1.8km 해상에서 급유선 A호(800t급) 주변 해상에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6시간 동안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해경은 A호 기관실에서 기름이 샌 것을 확인하고 선박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10월 1일부터 면제

엑스레이 촬영 등 100여개 항목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진료 빈도가 잦은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동물병원에서 기존 질병 예방 목적뿐 아니라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을 때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광견병 등 일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조제·투약, 혈액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 중성화 수술 등 질병 예방 목적으로 진료를 받을 때만 부가

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모든 예방접종·조제·투약을 포함시켰으며 엑스레이(X-ray)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신경계 등 계통별 기능검사, 내시경검사 등 3개 항목도 추가됐다. 구토·설사 등 11개 증상에 따른 처치를 받거나 내과·안과·외과·치과 등 82개 질병을 치료받을 때도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이번 고시로 동물의료업계의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단백질 보충제' 함량 확인해야겠네... 최대 7.3배 차이

당류 함량은 최대 105배 차이

시험되는 '단백질 보충제'의 단백질 함량이 제품마다 최대 7.3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시판 중인 단백질 보충제 중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16개 제품(분말형 8개, 음료형 8개)의 단백질 함량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단백질 보충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일반식품은 별도의 단백질 함량 관리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도 제품의 품질(내용량), 안전성(이물·보존료·미생물 등), 표시 적합성(원산지·제품명 및 온라인

물 표시), 가격 등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각 제품의 권장 섭취량 기준 단백질 함량은 최소 4g에서 최대 29g으로 제품 간 최대 7.3배 차이가 났다.

'닥터유 프로 단백질 파우더 아이솔레이트 초코'(분말형)는 1회 섭취량에 단백질 29g을 포함해 1일 기준치(55g)의 53%를 충족했다. 반면 '아몬드 브리즈 뉴트리플러스 프로틴'(음료형)의 단백질 함량은 4g(1일 기준치의 7%)에 불과했다.

1회 섭취량 기준 당류 함량 차이는 최대 105배까지 벌어졌다. '칼로바이 퍼펙트 파워쉐이크 아이솔레이트 초코맛'(분말형)은 당류 함량이 0.2g으로 가장 적었으며, '닥터유 단백질 드링크 초코맛'(음료형)은 당류가 20.9g 함유돼 가장 많

았다.

일부 제품은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트리선택토리 뉴유웨이 WPC 리치초콜릿'은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대두)이 검출됐으며, 내용량과 나트륨 함량이 실제 표시값과 차이가 나는 등 문제가 발견돼 개선 조치됐다. '국민프로틴 WPI웨이 초코'는 단백질 함량이 표시보다 적었고 지방·당류 함량은 표시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 가격은 단백질 함량 1g 기준으로 최대 11.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보충제 비교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사이트의 비교공감란에 게시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